

우리나라 病院史의 第2章을 여는 벽찬 자리



大韓病院協會 회장 白樂院

菊花香氣 그윽한 晩秋佳節에 우리나라 病院開院 1百周年을 기념하는 綜合學術大會를 뜻깊은 이 63빌딩에서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李海元보사부장관님, 文太俊 대한의학협회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 그리고 全國 京鄉 各地에서 不撤晝夜 어려운 여건아래 國民醫療 일선에서 애쓰시는 會員病院 院長님과 任職員 여러분!

公私奔忙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이 모임을 더욱 뜻깊게 해 주신 데 대해 眞心으로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우리 病院界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은 한해 입니다. 우리나라에 西洋醫學이 도입되어 최초의 病院인 廣惠院이 세워진지 꼭 1百年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病院史의 1世紀를 기록하는 해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1百年의 우리 病院史는 격동하는 우리나라 近代史와 함께 苦難과 試鍊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病院人들은 피와 땀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아직 미흡하지만 발전된 病院界의 기틀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고 우리는 앞으로 不斷한 노력과 지혜로서 國民들에게 보다 良質의 医療를 제공할 수 있는 病院을 건설하여 우리 後孫들에게 넘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病院管理綜合學術大會를 우리나라 病院開院 1百周年 記念大會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特別講演을 마련, 우리 医療界의 두 碩學선생님을 모시고 지나간 1百년동안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成長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病院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한편, 앞으로 1百년 동안에는 病院이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변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展望해 볼 것입니다.

現代病院은 많은 專門人들도 구성된 분야들의 팀웍으로서 비로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팀웍은 각 분야의 協同과 전체가 有機的으로 움직이는 組織力이 없이는 능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學術大會에서 「변천하는 社會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病院管理 향상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도 함께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學術大會를 계기로 病院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가 意見과 情報를 상호 交換하여 유대를 다짐으로써 전체 病院機能의 효율과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번 學術大會를 계기로 來年부터는 本 學術大會를 質的 量的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會員病院 각 분야간에 훌륭한 經驗과 知識, 그리고 情報交換의 場으로 삼아 病院機能 향상을 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病院史의 第2章을 여는 벽찬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번 綜合學術大會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 學術大會가 우리나라 病院의 보다 나은 向上發展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학술대회에의 마지막까지 참석하시어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참여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11월22일